

8.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5장 1-18절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이기적인 사람들. . .

우리는 인간 본성이 참 이기적이라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약하고 강함,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기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본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지 낫게 됨이러라]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공홀과 자비가 솟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못의 물이 한 번씩 솟구쳐 오르는데 그 때마다 천사가 내려온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때마다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낮게 되리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의 순간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는 전혀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스스로 그 은혜는 나에게만 필요하다는 이기적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 연못가에 ‘행각 다섯’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모세오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다섯’이라는 숫자는 자비와 공휩을 의미한다고 하죠.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은 형제들 중에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그에게 음식을 줄 때 다섯 배를 더 줍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휩을 베푸시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바라고 있지만 모두가 이기적인 상황 가운데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참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면 은혜를 입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니 갈급하고 허탈한 사람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푸신 은혜를 논쟁거리로 만들어 버린 종교적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니,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안식일을 범한 죄로 밖에 여기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김정주의 [안녕, 기독교] 중에서 나오는 은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 같다. 은혜 받고 깔끔하게 죄들을 청산해 버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고도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죄를 달고 다녀도
끝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또한 은혜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옆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뒤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질과 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산다.
내가 더 은혜 받았다. 내가 더 은혜롭다. 은혜 자랑, 은혜 등수 매기기 이제 그만.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행위로 얻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임하는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 세상은 참 차갑고 각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관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옳음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아닌지를 보시는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 하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38년 된 환자가 '죄인'이라는 것도 병을 고쳐주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14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워 있는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invalid'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38년 가까이 거기에 누워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6-7절.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사람은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참 갑갑합니다. 가끔씩 물이 동하는데, 자신은 움직이지 못하니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신세 한탄과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화가 났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까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나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불쌍한 사람이 병을 나은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도 아닌 듯합니다.

이제 다시 14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See, you are well again.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NIV 성경에서 의미가 더욱 분명합니다. 병이 나았는데 'well again'입니다. 이전에는 건강했는데 아팠고,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죄를 지으면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문제와 질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과 기능적인 문제라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으면 그만입니다.

죄로 찾아온 문제라면 그 죄로 인한 심각함과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특징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죄가 자라나지만 죄를 짓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울 때는 손에 굳은살이 생겼고, 스케이트를 타면서는 복숭아뼈에 굳은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팠는데, 굳은살이 많아질수록 손톱으로 눌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기타와 만돌린을 배울 때, 잠깐이지만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손끝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굳은살이 생기고 나니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자꾸 지으면 영혼에 굳은살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혼에 굳은살이 생기면 점점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느껴야 할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해 지려면, 죄로 인해 굳은살이 박힌 내 영혼에 예리한 말씀의 칼이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마주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심령이 깨어지고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면도날로 굳어버린 부분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겹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죄의 문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대충하는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부흥’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 사실은 무섭고 철저하게 일어났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부흥은 회개의 문을 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는 것으로 시발점이 되

었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의 주역은 로버트 알렉산드 하디(Robert Alexander Hardie: 1865-1949) 선교사입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 9월 아내와 함께 남감리교 의료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보건 위생 등 열악한 환경으로 1893년 그의 큰딸이 출생했지만 그 다음날 사망했고 작은 딸 역시 1903년에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1892년경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 등지에서 개척선교사로 수년간 일했지만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역에 실패했다는 절망감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도와 성경공부를 위한 어떤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수많은 동료선교사들과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서양선교사로서 자기 안에 있던 민족적 우월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술과 능력을 의지한 자만심,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민족으로 생각했던 교만 등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여러 한국 사람들과 서양 선교사들이 뒤를 이어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출처] 하디 선교사의 회개 | 작성자 마르지않는샘

원산 대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길선주목사님의 회개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 운동이 각각 개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놀라운 파급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득 찬 예배 회중들 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견잡을 수 없이 회개의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회개의 능력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어 놓느냐에 달린 것이죠.

상상하면서 아래 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1907년 1월 6일 주일 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의 불길이 시작되었다. 장대현교회의 부흥사경회는 매년 있어 왔던 연례행사였다. 그러나 이 해의 사경회는 시작 전부터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미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길선주(吉善宙) 장로가 이 집회 준비를 위한 새벽기도회 인도에 나섰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목전에 두고 있던 길 장로의 새벽기도회 인도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암시해 주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에 입교하기 전에는 도가(道家)와 선문(仙門)에 심취한 바 있는 인물로서 영적 감수성에 예민한 당대의 대표적인 부흥사였다.

이러한 길선주의 남다른 영성으로 인도된 장대현교회의 부흥사경회는 집회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길 장로는 강단으로 나와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길 장로가 자백을 하자마자 성령이 놀랍게 역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의 뒤를 이어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 이날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장로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으며,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참석교인들의 열기는 곧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길 바로 그것이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 이 있는데,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남자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상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싫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무조건’은 진심이 아닌 ‘말’로만 들린다는 것이죠.

여자들에게 이런 남자들의 행동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행동으로 보이기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쉽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프게 쪼개지고 하나 하나 드러나는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의 [안녕, 기독교]에 나오는 글을 조금 소개 하겠습니다.

“뭘 이런 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 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죄 세탁(?)만 하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회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리스도인 행동 Best 1’에 꼽힐 만한 모습이다.”

회개는 공식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후,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민었다’는 말씀도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결심했다’는 말도 더더욱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그는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미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수동적 인간에서 능동적 인간으로 말이죠.

지금 자신이 한 일로 인해 심각하게 자신의 삶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게임 체인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2년 피츠버그에서 검시관으로 일하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병리학자 베넷 오말루 박사(월 스미스)는 50세 남자 마이크 웹스터(데이비스 모스)의 부검을 맡는다. 자신의 트럭에서 죽은 채 발견된 마이크는 프로 풋볼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스타 플레이어 출신. 마이크의 뇌를 해부한 오말루 박사는 그가 경기 중에 뇌진탕에 버금가는 충격을 계속 받아왔고, 이로 인해 뇌가 손상되어 알츠하이머 비슷한 증세를 겪었음을 알게 된다. 오말루 박사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CTE)’이라는 병명을 붙여 의학 학술지에 발표한다. 이후 오말루 박사는 자살한 풋볼 선수 테리 롱도 마이크와 동일한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스틸러스의 팀 의사였던 줄리안 베일스 박사(알렉 볼드윈)를 통해 자신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듣는다. 위기를 느낀 미국 프로풋볼연맹(NFL)은 연구 결과를 철회하라면서 오말루 박사를 협박하고, 그의 아내 프리마(구구 바샤-로)를 스토킹한다. 한계를 느낀 오말루 박사는 NFL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캘리포니아로 떠나는데...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프로 풋볼 선수중에 24%가 그런 병을 앓게 될 것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한 기사와 평론들이 다루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말루 박사가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자 그의 아내 프리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나이지리아에서 이곳 미국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신을 부검하면서 그 사람을 왜 당신이 맡게 되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 .

사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는 15절에서 이 사람이 취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이었으니, 그가 하는 말로 인해 일어날 일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잘못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정류장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려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지나쳐 버린 경험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서 다시 타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방향을 바꾸어 타면 제대로 된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환자를 고치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기적이고 원망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기꺼이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때,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지혜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인생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안락함’에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7-18절.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에 행하신 일, 그리고 이 일로 인한 박해가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분명해 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 해 문지희 목사가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 별명이 있는데 ‘빛나는’ 이라는 형용사를 쓴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빛이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했던 38년 된 환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꺼이 빛이 되기 위해 삶이 귀찮아지거나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인생의 우울하고 암흑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입니다.